(Signal 매거진 1984년 7-8월호 중에서)

당신의 목표를 돌아보라....

*** 알트 로하임은 국제 어와나의 설립자이십니다.**

수년 전 자신의 교회에 출석하는 유소년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던 어떤 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분은 주일학교 평균 출석인원이 1,000명이 넘는 교회의 열정 있는 안수집사님이셨습니다. 그 분의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쉽게 주일학교를 떠나가는지 이야기 했습니다. 주일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과 주중 클럽의 필요를 깨달은 후, 직접 주중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던 그는 어떤 클럽을 운영할지, 그리고 어떻게 수 백 달러를 모금하여 대형 TV 스크린 세트를 구매하였는지 설명했습니다. 그 TV 세트를 교회에 설치한 후 이웃의 어린이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중 클럽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효과적인 주중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길거리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와나 감독관이시라면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잡은 목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초창기 어와나 교사 중 하나이자 에쿠아도르 퀴토Quito 의 라디오방송국 H.C.J.B의 설립자이면서 대표인 클라렌스 존스Clarence Jones는 "나는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클라렌스 존스의 목표들을 혼자서 유심히 살펴본다. 이렇게 나의 목표들을 다시 평가하고 나면 근본적으로 목표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라고 말했다.

이 조언은 오늘을 사는 우리 도전적이고 실제적인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이다.

여기 몇몇 교사들이 사용하는 목표들을 적어보았다.

1) 지금 25명의 어린이에 만족하지 말라, 여러분은 50명의 어린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지 모른다. 또한 지금 50명의 어린이가 있다고 만족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100의 어린이가 예비되어있을지 모른다.

2) 유니폼을 준수하라.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에서 유니폼을 강조하지 않는 클럽을 본적이 없다. 일반적인 클럽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클럽들도 유니폼을 준수하고 있다. 어린이의 시상을 게시할 유니폼이 없이 어린이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이 문제를 곧장 헤쳐나가라.

3) 정기적인 교사들의 모임을 가져라. 이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어떤 감독관도 교사들의 도움이 없이 계획을 세워 성공할 수 없다.

4) 심방계획을 가져라. 이것은 기본이다! 심방은 교사들에게 축복이며, 여러분의 클럽원의 부모님을 위한 사역이다.

5) 여러분의 클럽원들은 항상 암송확인을 통과하는가? 그것은 좋은 리더십의 증거이다. 열매를 맺는 클럽이 되라 요한복음 15:16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며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고 명령한다. 이것은 또한 모든 어와나 교사를 향한 최고의 목표이기도 하다.

나는 항상 "마귀는 거짓말쟁이임을 기억하라" 는 말로 편지를 맺는 선교사님을 기억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 말을 가끔 잊어 버린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라. 마귀를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말할 테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다.